남의 살림살이에 속지말라

보림회 회원들과 심우송 영어판등 계획

어도 죽음이 아니요, 삶이 삶이 아니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허공인 동시에 묘하게 존재' (眞空妙有)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 불멸의 세계는 참선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염불과 주력만으론 안돼요. 허공이 내려 앉다니 이런 도리가 어디이 있나요. 허공이 부서져야 '참자기'가 나타나요. 이게 진공의 자리요 본래면목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 미륵불, 달마대사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한 걸음도 부처님의 세계를 여읠 순 없어요. 옛 스님들은 이 자리를 무위사(無爲舍) 또는 원적산(圓寂山)이라 했고, 28대 조사님들이 함께 거하고 (同居四七) 6조사님들이 동행하는 길이제 많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나려놓지 않았다.

묵산스님은 견성이후의 닦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초견성은 성불공부의 입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산 가는 길을 알게 된 것과 직접 걸어가 보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이치를 깨달아 '이무애(理無碍)'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애(事無碍)'가 되어야 한다. '이사무애 사사무애'가 원융이 될 때라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처음 길을 알게 된 견성체험만으로는 공(空) 도리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보임(保任)의 기간으로 알고 더욱 정진해야 해요. 무아의 도리로 고행과 인욕행을 닦아야 하고 6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청정도리를 놓치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는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에 따라서는 초견성이후 사무애까지 직입(直入)하는 이도 있지만, 더욱 발심해서 정진해야 합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묵산스님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천백억 화신으로 바람과 눈, 비가 되어 중생을 듭는 것처럼 남모르게 보살행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스님들에게 오후(悟後) 공부는 더 어려운 과제였다.

"보임기간은 한 발자욱, 한 발자욱이 모두 공부거리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한 마디가 공부거리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8정도를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내 마음에 티끌이라도 붙어선 안됩니다. 마음이 '함이 없는 집(無爲舍)'이기 때문이죠.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할 때 '여시'자리가 견성자리입니다. '견성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묵산스님은 요즘 백봉 김기추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과 함께 백봉 선생의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월드컵 대회를 네달여 앞둔 시점에서 〈절대성과 상대성〉〈예불송〉〈심우송〉등을 이달중 영어, 일어로 번역해 4월초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보림회 전근홍 총무는 "묵산스님은 월드컵을 맞아 한국의 대승선법을 외국에 소개하려 합니다. 수십만의 외국인들이 불교작품 하나라도 갖고 가, 인생관을 새롭게 깨닫도록 소련어, 독일어로도 번역하실 뜻이 있습니다"라며, 종단의 무관심을 안타까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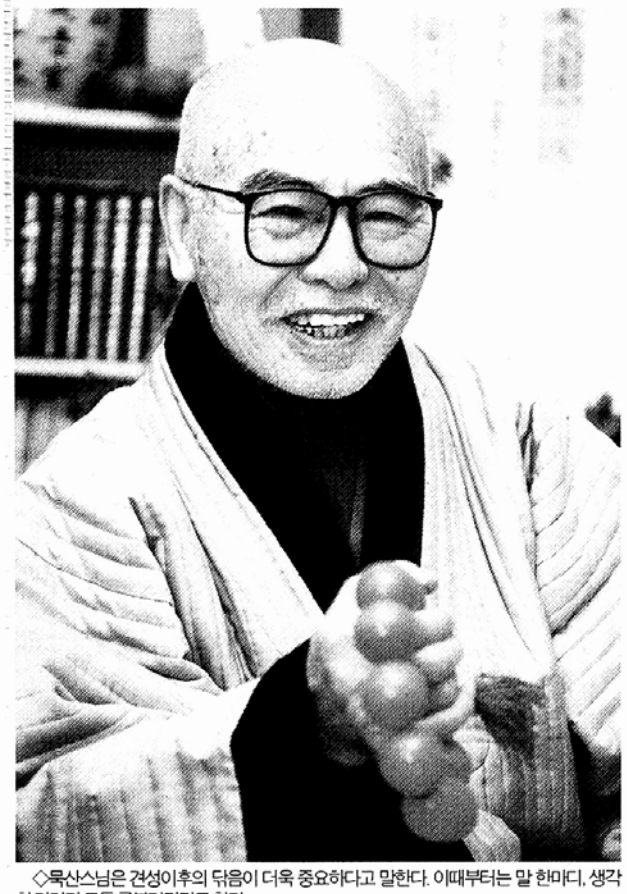
35년전 보림사를 창건,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며 포교에 매진해온 묵산스님. 60세까지도 서울 장안을 공부도량으로 삼아 아리랑고개-돈화문-창경궁-탑골공원-광화문-구파발로 목탁을 치며 전법에 나섰던 스님은 참선공부와 함께 포교의 중요성을 언제나 강조해 왔다.

"길 바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교하다 죽으면 후회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길위의 두 나무 사이에서 열반하시 않았습니까."

묵산스님은 요즘 불교의 주체의식과 수행정신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우려한다. 아집과 무명에 사로잡힌 불자들이 거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이 맑을 때 공부할 것을 당부한다.

"거룩한 인생은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불교는 마음자리를 궁구해요. 마음을 우선 잘 써야해요. 자식간에 불화하면 사회도 어지러우니, 우선 용심(用心)을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어찌해서 보고 듣는가, 차를 몰고, 비행기를 모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찾아야지요."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묵산스님은 견성이후의 닦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때부터는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가 모두 공부거리라고 한다.

묵산스님 : 그걸 몰라!(큰소리로 3번 반복)

수좌 : (두 손을 가슴에 얹은 다음 삼배하다)

3천제불 가운데 크고 작은게 어디 있겠는가. 묵산스님은 남의 살림으론 법문이 안된다고 말한다. 불법이 말세에 이르러 선지식이 없지만, 우리 불법이 세상을 건지려면 눈푸른 납자가 많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묵산스님은?

제주출생, 황룡사서 출가…정릉 보림사 창건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출생했으며 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65년 백봉 김기추 거사가 보림회라는 거사림을 조직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정릉 삼봉사로 스님을 찾아와 인연을 맺었다. 그때까지 묵산스님은 불교의 정수를 알지 못하다가 삼봉사에서 일요일마다 백봉거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선생으로 받들다. 35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 창건했으며, 토요일마다 백봉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 회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담스님

올 겨울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눈 덮힌 겨울산하를 자주 보게 된다. 하얀 산봉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눈녹듯 가슴속을 촉촉히 적셔온다. 벌써 40이 넘은 나이 탓일까. 새삼 지난 일들이 자주 떠오르고 그리워 지는 것은 턱없이 나이만 먹어버린 자신에 대한 착잡함 때문이리라.

흐르는 세월속에 빠르게 굽이치는 이 거대한 물결의 흐름속에 한점 작은 거품으로 스러져 간다 해도 기억만큼은 소중히 되살려서 주변의 따듯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다.

70년대 중반,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원효암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그야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 그때 함께 했던 스님들의 모습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 허운(虛韻) 법주(法柱) 현기(玄機) 현담(玄潭) 스님, 그 외에도 왕래가 잦았던 여러 스님들. 막내였던 내게 선배로서 또 출가인으로서 항상 내면의 경책을 아끼지 않았던 현담 스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아직까지도 시린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다.

원효암이란 암자는 다 쓰러져가는 법당 기둥에 누울 곳도 마땅치 않은, 그래서 감히 누구도 살기를 꺼려했던 아주 작은 암자였다.

자명스님등과 활발한 詩作

광주 민주화운동 목격후 절필

돌이켜 보건대 그곳이 중앙승가대학이라는 종립교육기관의 시원지(始源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초라한 암자가 작은 뭍줄기가 됐다는 것은 몇몇 관여했던 스님들을 제외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당시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이 좀더 교학에 뜻을 두고 연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종단 교육기관이 없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 해서 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은 당연히 선원에 가서 안거를 해야 정상적인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당시 절집 정서로 인해 교학을 공부하고픈 스님들에게 당시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중앙승가대학이라는 4년제 정규 대학이 있게된 동기는 몇몇 젊은 스님들의 간절한 뜻이 그 모태가 되었다. 그 젊은 스님들 몇이서 조종현 선생(〈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의 부친으로서 대강백이었다)을 모시고 경전공부를 하던 곳이 원효암이었다. 원효암을 시발로 해서 마곡사를 거쳐 돈암동 보현사에서 정식으로 중앙승가학원이 개원을 하게된 것이다.

현담 스님, 그도 당시에 원효암에 연을 두고 있었다. 좋은 시(詩) 한편만 쓰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가슴 뜨거운 젊은 시인이었다. 시인이기 이전에 혈기왕성한 젊은 스님이었다. 77년도인지 78년도인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소설가 양귀자씨와 함께 〈문학사상〉을 통해서 문단에 데뷔한, 장래가 촉망되는 서정시인이었다. 시집도 냈고 황청원, 자명, 진관 스님과 함께 동인시집에 동참하여 간간히 여러 지면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현담스님을 추천했던 이어령 김윤식 교수 두분으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20대 중반에 쓰여진 그의 짧은 시들은 아직도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나는 그의 열렬한 독자였다. 그는 늘 혼잣말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싶다고 했다. 속뜻이야 알길 없지만 그래야 한줄이라도 제대로 된 시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푸념이라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지금까지도 외롭고 힘든 길을 고집하고 있다.

현담 스님의 독서량은 대단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한 자루 촛불아래서 콧구멍에 그을음이 시커멓게 묻어나올 때까지 그렇게 독서로 긴 겨울밤을 지새우곤 했다. 횃배 앓는 사람처럼 노오란 그의 얼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움켜쥐고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듯 탄식의 신음소리를 자주 내게 들키곤 했다. 그때 암자의 살림



살이가 너무도 가난하여 윗절 갓바위에서 쌀과 초를 얻어다가 쓰곤 했다. 그러니 겨울밥상은 늘 시래기국과 김치가 전부였다. 그래도 당시는 너무 행복했다.

그러던 현담스님이 어느날 외유를 몇 개월 하고 오더니 시를 버렸다고 했다. 도반 스님들과 광주에 들렀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목격하고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듯 했다. 먹물옷 입고 한가하게 방구석에서 시나 쓰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유유자적하며 보낼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었는데 그 거칠고 직선적인 어투에는 어떤 비장함까지 엿보였다.

간간히 시내에 내려가 역사철학류와 사회과학 서적을 무겁게 들고와서 몇날 며칠이고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몰두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그의 손에서는 시집과 경전을 볼 수가 없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후로 정말 스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계속)

▩ 함창 자광사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昻明人中師一点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2002년 임오년 입춘절
근하신년 태일대사 합장

2002년 월드컵 성공 기원 대법회 및 대도 진인 웅조 달마 경신 도통 입문하여 세계평화 종교통일 - 용맹정진 대법회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진인 정진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바른길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권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퇴직자 명퇴자 고인력자 초보자 및 철학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청소년 담당 및 초중고 진학담당 할 지도자 자녀들 및 일반인들이 시회전반의 각대학 직장학과 진로 방향의 마무리 카운셀러비법. 각자의 개성을 살리어 중차대한 앞날의 진로과정을 화학적반응, 물리학적반응, 심리학적 반응으로 미래의 기둥을 만들 수 있는 특별 강의를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강. 초보자 환영 [전화 02)821-6622, 016-239-31110]

달마의 진법을 수강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1-7767] 대한 역학 풍수지리 학술회장 백

● 입제 : 양력 2월 20일 수요일 ● 해제 : 양력 2월 21일 목요일
● 동참금 : 1박 2일 5만원, 점식제공 농 협 029-01-167866
하나은행 157-015402-00108 곽태일(한영) FAX 02)821-7768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 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입구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달마선원장

(출강 · 통신)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법사 수행의 길로 초대합니다

본 대학은 10년간 오로지 법사 양성에만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법사학인 교학도량입니다.

●

본 대학에서는 대승불교의 보살학법에 의해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의 법위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전법활동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❶출강반 ❷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6. 교육 장소 : ❶서울 본 대학 ❷부산 학습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권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